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스스로 만든 외로움

우리 모두는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뭘까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많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미 타인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느끼지 못해요.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좋고 나쁘다는 분별심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면 그 누구하고도 바로 친하고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타인과의 연결성을 느끼면 치유할 수 있어요. 〈입보살행론〉에 "세상에 모든 행복은 타인을 생각해서 있는 것이고, 세상에 모든 고통은 자신만 생각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㉔ 이스라엘 입성기

종교는 무엇 위해 존재하는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문명기행을 시작한다. 혹자는 "왜 하필이면 기독교 성지인 이스라엘로 순례를 가느냐"고 하지만, 필자는 도리어 "왜 그곳에 가면 안되느냐"고 되묻는다.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야할 길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행을 위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롯한 몇 편의 종교영화와 '인디애나 존스', '아라비아의 로맨스' 등의 상업영화와 심지어 드라마 '미생'까지 섭렵했다. 또한 구약과 신약성경을 비롯한 사막교부의 저작들과 이슬람 관련 서적 들을 탐독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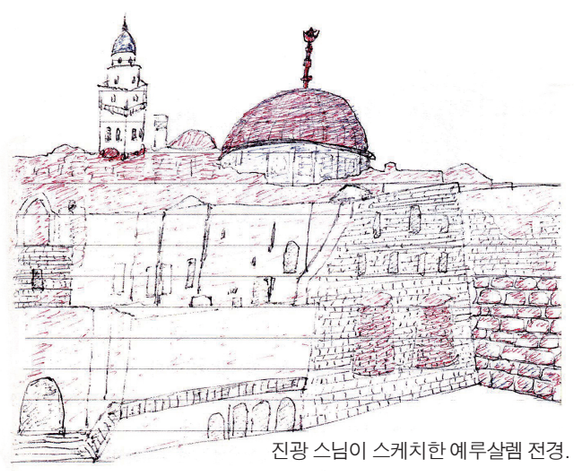
어젯밤에 대중 스님들께 무사히 입국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무언가 난관에 처했을 적에는 지도법사 혜국 스님의 법력, 혹은 대중의 간절한 신심과 원력의 기도정진과 자비덕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지난한 밤을 이겨낸 자만이 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무려 3시간 넘게 걸려서 간신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했다. 마치 국경 근처의 다리 아래 풀숲 사이로 실개천처럼 흐르는 요단강을 건넌 느낌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인 요단강을 건너서 젓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으로 향한다. 말이 그렇지 이곳은 황량한 사막이나 진배없다. 청년예수가 광야로 들어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곳도 이곳이다.

양쪽의 고원지대가 지각변동으로 갈라져 분지를 이룬 곳에 해발 마이너스 430m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인 사해(死海)가 자리한다. 염도가 33%이고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진흙팩을 하면 관절염에 좋다기에 일행도 사해체험에 나섰다. 바다에 들어가 하늘을 보고 누우면 몸이 둥둥 떠오른다. 혜국 스님도 "내가 언제 다시 와 보겠느냐"며 들어갔고, 비구니 스님들도 들어가 체험이 한창이다.

사해에서 한식 도시락으로 마음에 점을 찍고는(點心) 나사렛의 수태고지교회와 성 요셉교회, 그리고 가나라는 곳의 혼인잔치교회로 향했다. 예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의 수태고지 교회 주랑 내벽에는 한국 카톨릭에서 만들어 기증한 한복 차림의 성모 마리아와 예수그림이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무궁화 꽃 아래 '평화의 모후여, 하례하나이다"라고 적혀있어 자못 감동적이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성 요셉교회 마당에 요셉의 청동상이 있다. 그런데 유독 무릎이 닳아 반짝



진광 스님이 스케치한 예루살렘 전경.

세계서 해발 가장낮은 사해 '신기'
이스라엘 곳곳서 예수 생애 확인
사막서 영원의 십자가를 세우다

이기에 물어보니 그곳을 만지면 관절염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하도 매만져서 그렇다고 한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복적인 면은 동서양의 종교가 별반 다르지 않는가보다.

'가나'라는 마을에서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인 혼인잔치교회를 순례했다. 그리고 여리고 마을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맛보고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入城)하였다. 해질녘 붉게 물든 황금돔 사원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은 그날도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지난밤 꿈에 구약과 신약의 역사와 기나 긴 디아스포라(유형),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유대민족의 온갖 고난과 수난의 역사를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석학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비롯한 저작들을 되새겨 보았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까지 모두가 우리에겐 불가해(不可解)의 화두(話頭)와 같다. 불교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저들은 불모의 사막 한가운데서 영광과 불멸의 십자가를 세웠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첫 일정은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았다.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진실 앞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눈물과 한숨만 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결단코 잊지는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기려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곳까지의 12군데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본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길이다. 그 끝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채 죽음을 맞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승천교회가 자리한다. 가톨릭과 탁발수도회 등의 8개 단체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기독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인의 고난과 순교를 떠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함께했다.

그리고 황금돔 사원과 통곡의 벽이 있는 광장을 돌아보았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의 유대성전이 있었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바위 위에 지금의 황금돔 사원이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순교한 까닭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이다. 지구상 3개의 거대종교가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성벽에 모여 저리 슬프게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고 있어 '통곡의 벽'이라 이름하는 것이리라. 이곳 통곡의 벽에서 종교가 과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위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친절과 용서의 종교가 필요한 때이다.

오후에는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를 돌아보았다. 허름한 시골의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며 그의 삶과 죽음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벽과 황금돔 사원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에서 회향식을 가졌다. 알 수 없는 눈물과 환희가 가득한 의미있는 법석이었다. 정운 스님의 발원문을 가슴에 새기며 어제와는 다른 내일의 길과 희망을 노래한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여기'에서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이기를 빌어본다. 〈끝〉 〈조계종 前 교육부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